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서명부 국회 전달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에 40만 명 동참… 공감대 확산”

‘신생아 1명 당 출산장려금 1억 원’이라는 과격적인 저출생 지원책 시행과 함께 ‘노인 연령 기준 75세 상향’ 제안으로 저출생·고령화 해결사로 나선 이중근 대한노인회장(부영그룹 회장)이 11일(목)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40만 명 서명부 국회 전달식’을 가졌다.

이 회장은 이날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40만 명이 동참한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 회장은 올해 2월, 부영그룹 시무식에서 대한민국의 장래와 후손들을 위해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을 주장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

이 회장은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서명부 전달식’에서 “6·25전쟁은 유엔군 60개국이 유엔 창설 이후 최초로 현재까지 유일하게 참전한 전쟁이다”라며 “낮선 땅에서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운 유엔군의 희생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동방예의지국의 면모를 갖춘 유엔군의 헌신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는 마음으로 유엔데이를 국가 공휴일로 재지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유엔데이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목표

로 UN이 창설·발족된 1945년 10월 24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까지 법정공휴일로 기념되어 왔으나, 북한이 1976년 유엔 산하 기구에 가입하자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1976년 공휴일 지정을 폐지했다.

이 회장은 “유엔데이를 공휴일로 지정해 기념한다면 6·25전쟁 당시 우리를 도와준 유엔 참전 60개국과 외교적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장래와 우리 후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양 의원 측은 ‘유엔은 과거 6·25 전쟁 당시 유엔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쟁 중인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유엔군을 파견하여 우리나라를 위해 싸웠으며, 우리나라가 전세계로부터 받은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유엔의 설립일인 매년 10월 24일을 공휴일인 ‘유엔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려는 것’이라며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중근 회장은 유엔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2015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6·25 유엔참전국 상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이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UN데이 공휴일 재지정을 제안하는 서명부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영섭 대한노인회 혁신위원장,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징 기념물을 기부하기도 했다. 23개국(참전 22개국, 대한민국 포함) 국가별 상징작품에 승리의 상징 월계관과 참전사 항, 참전 부대마크와 참전규모 및 전투 기록, 참전 용사에게 바치는 글 등을 담았다. 용산 전쟁기념관 6·25 유엔참전국 상징 기념물은 현재 부산 재한유엔기념공원(옛 명칭 유엔기념묘지)과 함께 전세계 단 2개 밖에 없는 유엔참전유산으로 각국의 참전용사를 추모하고 기억하

는 상징적 공간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이 회장은 “6·25전쟁 1129일”을 집필해 후대에 전쟁의 참혹함을 알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관적 해석을 배제한 채 양·음력과 간지(干支), 요일, 일기를 사실 그대로 나열해 기록하는 ‘우정체’ 기술 방식으로 저술하여 국내외의 기관과 해외 참전국에 1000만부 이상을 기부한 바 있다. /이승원 기자



고흥군 동강면, 정성 가득 반찬으로 이웃사랑 나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부녀회원들 취약계층 위한 ‘반찬나눔’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정동준, 민간위원장 송기원)는 지난 11일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홀로 어르신, 장애인, 취약계층 노인 등을 대상으로 ‘사랑의 반찬나눔 지원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맞이 ‘사랑의 반찬 나눔’은 동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일환으로 진행됐다. 명절을 앞두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과 든든한 한 끼를 전하고자, 협의체 위원들과 부녀회원들이 함께 모여 김치, 전, 장조림 등 명절 음식과 밀반찬을 정성껏 준비해 취약계층 50세대에 전달했다.

반찬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밝은 미소와 함께 “명절이 허전했는데 가족이 행

겨준 것 같다. 따뜻한 손길 덕분에 마음까지 든든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새벽부터 나눔 행사에 참여한 송기원 민간위원장은 “정성껏 준비한 반찬으로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함께 나누고 돌보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동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 한 해 동안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효사랑 선물지원 ▲무더위를 이겨내도록 돕는 여름철 행복이불 전달 ▲시원하고 입맛 돋우는 여름철 물김치 나눔 ▲추석맞이 반찬 지원까지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희/박도일 기자

광주양궁대회 심판의장 “5·18광장 결선… 분쟁·전쟁 국가에 희망 전달”

5·18민주광장 ‘한국 민주주의 상징’ “부친 6·25전쟁 부상… 양궁으로 재할·아들도 심판”

6·25전쟁 참전용사의 아들이자 양궁으로 광주와 인연을 맺은 세계양궁대회 심판 의장인 영국의 그라함 포츠(Graham Potts)가 5·18민주광장에서 펼쳐진 결선에 대해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그라함 포츠는 12일 오후 광주2025현대세계양궁대회 결선 무대가 설치된 5·18민주광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세계는 전쟁·분쟁 등으로 어지러운 상황”이라며 “광주 대회는 민주주의와 평화의 메시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5·18민주광장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며 “광주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공간에서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결선 무대에 섰고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며 “세계 여러 나라에 광주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달됐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회는 76개국 731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지난 5일부터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예선 라운드를 펼쳤고 메달이 결정되는 결선은 5·18민주광장에서 열렸다.

5·18민주광장은 1980년 5월 신군부 폭압에 맞서 민주·평화·인권권을 외치는 광주시민들이 모였던 장소다. 결선 무대 뒷편에 조성된 분수대에 올라 민주주의를 외쳤고 전남도청에서 신군부의 총칼에 최후를 맞이했다.

지난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의 작품 ‘소년이 온다’의 배경이 5·18에 전남도청 일대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광주시는 개최도시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결선전을 치를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세계양궁연맹조직위에 5·18민주광장을 추천했고 대회 기간 8일 중 6일 동안 결선 경기가 펼쳐졌다.

단 3명만 설수 있는 5·18민주광장 특성결정장 시상대에는 한국을 비롯해 멕시코, 스페인, 프랑스, 인도, 대만, 네덜란드, 미국, 일본, 브라질, 덴마크,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슬로베니아, 카자흐스탄 등 총 15개 국가의 국기가 걸렸다. 심판 의장은 또 개인적으로 한국과의 인연을 소개하며 광주에서 열린 이번 대회가 상당히 의미 있었다고 밝혔다.

그라함 포츠의 아버지는 6·25전쟁 참전용사이며 부상을 당해 양궁을 통해 재활했다. 당시 인연으로 그라함 포츠도 양궁을 접했고 아들까지 이어져 이번 대회 부자가 나란히 심판으로 참석했다. 또 그라함 포츠는 한국 대표팀이 금메달을 획득했던 순간에 심판으로 참여해 메달의 기쁨을 현장에서 지켜봤다.

그는 “이번 한국대회를 끝으로 국제대회 심판은 은퇴



세계양궁연맹 심판의장인 영국의 그라함 포츠(Graham Potts)가 12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설치된 광주2025현대세계양궁대회 결선 경기장에서 이번 대회 총평을 하고 있다.

하고 영국양궁연맹회장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며 “심판으로서 마지막 대회에 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회가 끝나면 곧바로 돌아가고 처음으로 아들과 관광을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오철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시에 호우피해 성금 500만 원 기탁 광주전라제주본부, 호우 피해 가구 조속한 생활 안정 돕기 지원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이영희)가 극한 호우로 피해를 본 수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직원들이 마련한 것으로 갑작스러운 폭우로 피해를 본 나주시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나주시청에서 지난 11일 열린 기탁식에는 윤병태 나주시장(가운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영희 광주전라제주지역본

부장(왼쪽 두 번째), 조명숙 나주시장이 참석해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영희 본부장은 “수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빠른 복구와 일상 회복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나주시 이재민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호우 피해 가구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2025 장성 방문의 해

국내 최대 규모 인공조림
축령산 편백숲

장성이 보내온
힐링 초대장